

## 1 동성

-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지난 8월 11일 제6대 위원 위촉식 직후 위원회를 개최, 위원장에 양성우 위원을, 부위원장에 김동호 위원을, 감사에 김태승 위원을 각각 선출하였다.
-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성공적인 기업승계와 안정된 기업경영을 통한 명품 중소기업을 만들어갈 차세대 뉴리더를 양성하고자 '제2기 Kbiz 뉴리더스 아카데미-기업승계 차세대 CEO 과정'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 ▶ **김양평** (주)지엠피 대표이사가 최근 파주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선출됐다.

## 2 부음

- ▶ **장철희** 신아원색 사장의 부친이 지난 8월 18일 별세했다.
- ▶ **윤병업** 형제문화사 사장의 빙모가 지난 8월 7일 별세했다.
- ▶ **정용진** 연방전산인쇄 사장의 장인이 최근 별세했다.

## 3 화족

- ▶ **반석진** 반프로 사장의 딸 효정 양이 지난 8월 22일 노블레스 웨딩홀에서 화족을 밝혔다.
- ▶ **홍순범** 중앙디엔피 사장의 장녀 수정 양이 지난 7월 11일 오월의 정원 팬지하우스 웨딩홀에서 화족을 밝혔다.
- ▶ **이종필** 동양잉크 소장의 장녀 보영 양이 오는 9월 5일 오후 1시 어린이회관 1층 목련홀에서 화족을 밝힌다.

## 4 변경

- ▶ **유진인쇄**(대표이사 강현규)는 최근 법인으로 전환했다.
- ▶ **(주)신보에이드**의 대표이사에 최근 이기섭 씨가 취임했다.
- ▶ **동신프린팅**(대표 김종열)은 최근 상호를 나이스기획으로 변경했다.

## 인쇄단체 · 기관뉴스

Association news

### 제 21회 인쇄문화의 기념식, 9월 14일 세종문화회관서

제21회 인쇄문화의 기념식 및 정보포상·인쇄문화대상·직지상 시상식이 오는 9월 14일 오후 5시부터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대한인쇄문화협회,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서울시인쇄정보조합 공동 주최로 개최된다.

### 이운경 대일코퍼레이션 대표, 인협에 1억원 기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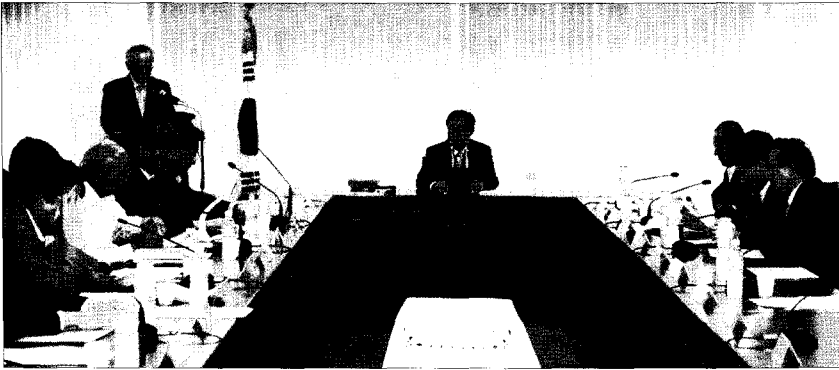
이운경 대일코퍼레이션 대표는 지난 8월 10일 대한인쇄문화협회를 방문, 홍우동 회장에게 인쇄문화 발전기금 1억 원을 기탁했다. 이운경 사장은 “우리 인쇄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기도 떨어져 있어 다소나마 위안과 용기를 북돋을 있는 길이 없는가를 고민했다”면서 “대한인쇄문화협회에서 기탁금을 좋은 일에 사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우동 회장은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1억 원이라는 큰돈을 기탁해 줘 정말 감사하다”고 말하고 “기탁자의 뜻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해 기금을 사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인쇄문화협회는 기탁자의 소중한 뜻에 따라 이 기금을 인쇄 교육생 및 연구자들의 장학기금 등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날 기금 전달식에 자리를 함께 한 김남수 대한인쇄문화협회 부회장(청아문화사 대표)과 노주현 진양인쇄공사 대표는 “이운경 사장의 고귀한 뜻에 큰 감명을 받았다”며 “앞으로 더 많은 인쇄인들이 장학 사업 등에 참여하고 협회가 이를 주관하면 좋겠다”고 말했다.(사진 왼쪽부터 김남수 부회장, 홍우동 회장, 이운경 사장, 노주현 사장)

## 인쇄연합회 제6차 정기이사회 개최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이충원)는 지난 8월 18일 서울인쇄센터 7층 강당에서 2009년도 제6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는 개회사, 전차의사록 낭독, 업무 집행상황 보고, 2009년 2/4분기 말 재무제표 보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충원 회장은 개회사에서 “무더운 날씨에도 참석해주신 이사님들께 감사하다”고 말하며 “경기가 불황이고 어려울 때일수록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해서 다시 희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인하여 애로가 많겠지만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정기이사회에서는 사업보고 및 모든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서울인쇄조합 B2B쇼핑몰소위원회 개최

서울인쇄조합 B2B쇼핑몰위원회(위원장 권명순)는 지난 7월 31일 서울인쇄조합 회의실에서 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소위원회는 쇼핑몰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 논의하였으며 또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참여도를 높여 나가는데 전력하기로 했다.

## 동국대RIS사업단, 중점지원기업 모집

동국대학교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단(단장 이의수)에서는 △인쇄업체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기술지원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장 단기간의 인쇄업체의 생산성 향상 도모 및 산학 연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중점지원기업’을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인쇄기 또는 출력기를 보유한 업체로 종업원 30인 이상인 기업으로 지원기간은 2010년 6월 30일까지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1 대 1 맞춤형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생산 환경에 대한 경영 기술 컨설팅 지원(가칭 쿠폰제를 통한 지속적인 기술 경영 컨설팅 중심의 지원) △MIS(경영정보시스템) 설치 지원 △직원 재교육 지원 △각종 세미나 워크숍 포럼 기술정보자료 무상 지원 △사업단에서 실시하는 기업지원사업의 우선 지원업체 선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 : 2009. 8. 1 ~ 2010. 6. 30

## 5 이전

- ▶ 한맥금박인쇄대표 김진영)는 최근 상호를 한맥특수인쇄로 변경하고 사업장을 서울시 중구 필동3가 39-3으로 이전했다.
- ▶ 삼정문화인쇄사대표 조성기는 최근 사업장을 서울시 중구 인현동1가 24-1로 이전했다.
- ▶ 삼진기획(대표 전성현)은 최근 사업장을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108로 이전했다.
- ▶ 대영프린팅(대표 조성호)은 최근 사업장을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4가63-7로 이전했다.
- ▶ 헤경미디어(주)대표이사 김기연)는 최근 사업장을 서울시 중구 필동3가 79-66으로 이전했다.
- ▶ (주)제인팅(대표이사 장우현)은 최근 사업장을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1가 13-185로 이전했다.
- ▶ (주)성보프린팅(대표이사 윤영천)은 최근 사업장을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2가 277-7 103호로 이전했다.

## 고인쇄박물관 활판인쇄 전시

청주 고인쇄박물관은 1층 상설전시관 10여㎡에 활판인쇄 과정을 보여주는 인쇄시설을 전시했다. 이 인쇄시설은 활판 인쇄에 사용되던 문선(文選), 식자(植字) 세트 등 34점으로 공군사관학교가 1950-1970년대에 공군교구장에서 사용하던 것을 최근 이 박물관에 기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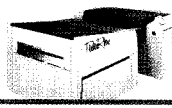
고인쇄박물관은 파주 출판도시의 ‘활판공방’의 협조를 얻어 활판인쇄와 관련된 영상물과 사진자료도 같이 전시할 계획이다.

## 일산동구, 출판사 영업실태 조사

고양시 일산 동구는 관내 527개 출판사의 영업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표자 변경 등 주요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업체가 87개사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출판사 및 인쇄사가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바뀐 이후에도 영업신고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 대표자가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신고를 하고도 영업하지 않은 경우 등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지난 6월부터 2개월간 문화관광 팀장 등 3명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각 사업장을 현장점검 하였다.

이번 조사결과 주요 변경사항 미신고업체 87개소 중 68개소(대표자 변경 11개소, 이전신고 23개소, 폐업 34개소)는 변경신고를 완료했다.

**:: 인쇄 · 프리프레스 뉴스**  
 Printing Prepress news



**김양평 GMP 회장, 파주상공회의소 회장 취임**



김양평(주)GMP 회장은 지난 7월 20일 파주웨딩문화원에서 류화선 파주시장, 신충호 파주시의회시의회 의장 등 기관 단체장과 상공회의소 회원업체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취임사에서 김양평 회장은 “창립이후 상공회의소의 안정적 기반구축에 노력한 전임회장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봉사하겠다”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경제단체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회원을 배가하는 상공인의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는 단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양평 회장은 “회원간 상호교류 협력 체제 구축, 회원사 결속력 강화, 지역사회 봉사활동 전개로 지역사회에서 신뢰받는 상공회의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케이비에이-삼우**

**중국 MK사와 국내 독점대리점계약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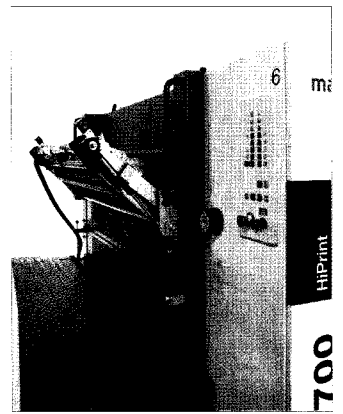
케이비에이-삼우는 최근 중국의 후가공전문제작업체인 MK(Master Work Co.,Ltd)사와 국내 독점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케이비에이-삼우는 MK사는 지난 1995년 설립된 이래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제품 개발로 연간 매출 6백억원에 달하고 있는 탄탄한 전문 후가공전문제작업체로서 현재 미국, 영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전세계 10여개 국가에 많은 수출실적을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케이비에이-삼우는 앞으로 국내 실정에도 적합하며 고객들에게 가격과 성능, 품질면에서 만족을 드릴 수 있는 MK사

의 톱슨기, 금박기, 접착기 등을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만로랜드, 인라인코터 스마트 인기**

만로랜드는 로랜드 인라인코터 스마트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에 코팅을 입히는 패키지 인쇄뿐만 아니라 일반 상업 인쇄에서도 이러한 인라인 코팅 시스템이 상용화되어 간헐적인 코팅이 필요한 고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만로랜드는 간헐적인 코팅의 범위가 30% 이하인 상황에서 고객의 입장을 고려해 기존 장비에 추가하여 하나의 업그레이드로 활용되도록 개발된 만로랜드의 인라인 코팅 장치인 인라인코터 스마트는 고객의 경제적 이익과 투자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랜드 인라인코터 스마트는 간헐적으로 박엽지나 얇은 마닐라지에, 수성 코팅(제품보호, 무광, 유광 코팅)을 입힐 경우에 유용한 업그레이드 장비로써, 본 인라인코터 스마트를 활용한 수성 코팅의 주 목적은 인쇄물의 보호이다.

로랜드 인라인코터 스마트는 ROLAND 700 하이프린트 편면 및 양면 시스템 모두에 적용 가능하며 마지막 유닛에 설치된다. 아울러 로랜드 인라인코터 스마트를 장착한 마지막 인쇄 유닛은 인쇄에서 코팅으로 그리고 그 반대로의 전환이 쉽고 간단하여 짧은 시간에 바로 작업 전환이 가능하다.

**만로랜드 프로서브 유지보수 프로그램 제공**

만로랜드는 사전 예방적 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Pro-active Service는 프로서브 베이직, 프로서브 스탠다드, 프로서브 스탠다드 플러스, 프로서브 콤포트, 그리고 프로서브 슈프림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로랜드 프로서브 유지보수 프로그램으로 고객이 보유한 만로랜드의 인쇄 장비와 관련된 사전점검 서비스이다.

유지보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 가치를 증진시키며 예기치 않은 작업 중단을 최소화, 해당 장비로 인한 생산성을 극대화시킬 목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인 프로서브 프로그램은 계

약 당사자인 고객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만로랜드의 인쇄 장비에 대하여 기계 및 전기 엔지니어의 정기적인 방문 서비스를 제공 받게 된다. 이런 사전 예방적 서비스를 통해 고객은 장비의 유지보수 체크리스트에 따른 면밀한 사전 점검과 진단을 받게 되어 고장으로 인한 예기치 않은 손실 발생을 줄이고 지속적인 고품질 인쇄를 유지, 기계 가동률을 높일 수 있게 된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만로랜드코리아(주)는 만로랜드 프로서브 유지보수 프로그램 브로셔를 제작하여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 만로랜드코리아, 새로운 광고 제작

만로랜드코리아(주)(대표 케네스 엠 한센)는 2009년 하반기를 위한 메인 광고를 새롭게 선보이고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로랜드코리아는 새 광고의 컨셉은 꼼꼼한 1440° 서비스, PRINTVALUE - 완벽한 인쇄시스템을 위한 4가지 서비스라고 전했다.



PRINTVALUE는 만로랜드 인쇄기를 둘러싸며 1440° 서비스로 인쇄시스템 외에 고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장 리더로서 그 위치를 더욱 견고히 하는 것이며 PRINTVALUE 브랜드는 이러한 능력을 보여주고 시장에서 그러한 능력을 정착시키는 것을 뜻한다.

즉, 종합적인 고객 관리 시스템인 printservices 360°, 만로랜드의 인쇄재료인 printcom 360°, 첨단 네트워크 통합 도구인 printnet 360°, 그리고 모든 상담 서비스의 총체인 printadvice 360° 등이 PRINTVALUE 브랜드 상품 계열로 만로랜드는 인쇄기와 관련해 자체 전문성에 전력을 기울이며 고객에게 확고한 부가가치를 제공할 것이라는 것이다. 만로랜드는 PRINTVALUE는 진정한 고객 지향 서비스의 총체로 고객의 미래를 더욱 밝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프랭클린 플래너, 공기름 인쇄방식 도입

시스템 다이어리 제조사인 프랭클린 플래너는 지난달 18일 오는 9월부터 출시되는 전 제품에 공기름 인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162종의 생산제품 가운데 몇몇 제품에 공기름 인쇄를 도입했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모든 종이제품에 친환경 공기름 인쇄공법을 적용하게 된 것.

회사 측은 “공기름 인쇄는 기존 잉크의 주재료였던 석유계 오일 대신 대두유에서 추출한 공기름 잉크를 사용해 인쇄하는 친환경 인쇄공법”이라며 “이 기법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C)에 의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고, 식물성이기 때문에 폐기 시 미생물에 의해 더 쉽게 분해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적은 양의 잉크와 물로도 충분한 잉크 농도를 얻을 수 있어 자원도 절약할 수 있고, 인체에 무해하기 때문에 대체 잉크로 각광받고 있다.

이경재 대표는 “공기름 잉크의 가격은 기존 화학잉크보다 약 10%정도 비싸지만,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참여와 책임이 요구되는 이 때에 업계 리더기업으로서의 친환경 경영의 도입은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프랭클린 플래너는 올해를 친환경 경영의 원년으로 삼고 환경재단과 공동개발 중인 에코플래너를 11월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과대한 포장을 줄이고 포장용지를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고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캠페인도 펼칠 예정이다.

### 성도GL/성도솔루션, 후지필름 본사 기술 교육



(주)성도GL/(주)성도솔루션(대표이사 김상래)은 지난 7월 일본의 후지필름 본사를 방문해 약 3주간에 걸친 기술교육을 이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 교육은 각 생산공정의 특성을 이해하고 제품의 실제 사용에 있어서 기술적 팁과 100%의 제품 품질을 위한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었다. (주)성도GL/(주)성도솔루션에서는 앞선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 국내 고객들에게 만족과 품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도GL / 성도솔루션, 프로세스 관리 리더십 교육



(주)성도GL / (주)성도솔루션(대표이사 김상래)은 8월 4일과 11일 양일간 '프로세스 관리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전 임직원의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1회 당 약 2시간의 강좌로 진행되었으며 프로세스 관리로 내실을 다지고 고객에게 보다 빠르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생각의 토론을 진행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주)성도GL / (주)성도솔루션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토론을 통해 임직원 모두가 고객의 만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레일로 이어지는 행복+' , 스티비 어워드 수상

하나로애드컴(대표 손정희)이 기획 디자인을 하고 있는 코레일 사내보 '레일로 이어지는 행복+' 가 국제적 권위의 '2009 국제 비즈니스 대상' (International Business Awards, 이하 IBA)에서 가장 경쟁이 심한 부문인 '올해의 홍보팀' (Communications Team of the Year) 대상(Stevie Awards)을 수상했다.

올해 IBA에는 40여 개국 1천700여개의 작품이 출품돼 경합을 펼쳤으며, 코레일 사보는 올해 처음 출품해 '올해의 홍보팀' 스티비 어워드를 수상했다. 스티비상(Stevie)은 IBA의 대상으로 그리스어의 '왕관' 을 의미한다.

코레일 사보는 1964년 창간, 42년 동안 직원들간 소통의 도구로 큰 역할을 해왔으며, 특히 직원이 직접 기자가 되어 취재도 하고 사진촬영도 해 철도현장의 소리를 생생하게 전해온 사내커뮤니케이션의 대표적 매체이다.

올해 6회째를 맞은 IBA는 기업과 조직의 한해 사업 활동을 기업, 사무소, 제품·조직·팀·개인, 광고, 미디어 활동 등 5개 부문 131개 분야로 나눠 평가하는 국제대회로, '비즈니스 분야의 오스카상' 으로 불린다. 시상식은 오는 9월 14일 미국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필라코리아2009, 30개국 20여만점 우표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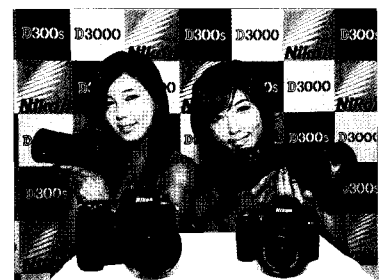
필라코리아 2009(제24회 아시아국제우표전시회)가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6일간 서울 코엑스 인도양홀에서 열렸다. 이번 필라코리아 2009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유치해 열리는 아시아우표전시회이며, 우리나라는 84년, 94년, 2002년에 세계우표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임채민 지식경제부 차관과 남궁 민 우정사업본부장, 전용학 한국조폐공사 사장을 비롯해 공바타나 (Surajit Gongvatana) 아시아우취연맹 회장과 테이(TAY Peng Hian) 아시아우취연맹 상임고문 등 아시아 30개국 우정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주제별로 우표를 만날 수 있었다. 호주의 조지5세 기념우표 등 각 나라의 옛 우표를 모아놓은 전통우취부문과 일본·쿠웨이트·몽골 등 나라별 우편사 우표가 전시되는 우편사부문, 북극과 남극의 발견(사우디아라비아) 등 자연·문화·기술의 테마우취부문 우표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세계 각 나라별 우표를 각각 1000원에 구입할 수 있어서 큰 인기를 모았다. 이 외에도우표문화교실, 나만의 우표, 녹색환경관, 우정IT관과 이벤트존, 우표디자이너 사인회, 우표롤렛게임, 우표퀴즈미로찾기, 우정 125주년을 기념한 1·2·5 현장이벤트 등도 펼쳐졌다.

니콘이미징코리아, D300S 등 DSLR 카메라 발표

니콘이미징코리아 (대표 야마구치 노리아키)는 DX포맷의 플래그십 모델 D300S 등 DSLR 카메라 2종 (D300S, D3000)과 줌렌즈 2종(AF-S DX NIKKOR 18-200mm F3.5-5.6G ED VR, AF-S NIKKOR



70-200mm F2.8G ED VR) 등의 신제품을 지난 7월 30일 전세계 동시 발표했다.

D300S는 지난 2007년 출시, 뛰어난 성능과 기계적 완성도로 지금까지도 큰 인기를 얻고 있는 D300의 업그레이드 모델이다.

D300S는 기존 D300의 우수한 성능을 계승하면서 동영상 기능을 추가하고, 고속 연사 촬영 성능을 강화한 카메라로, 전문 사진 작가나 하이 아마추어에게 적합하다. 동영상 촬영 기능인 D Movie(디무비)를 탑재해 HD급의 고화질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특히 기존 동영상 촬영이 가능했던 니콘의 D90, D5000과 달리 외부 스테레오 마이크를 지원하고, 촬영한 영상의 시작과 끝을 설정할 수 있는 편집 기능을 내장하고 있다. 또한 고속 연사 촬영이 초당 약 7장까지 가능하다. 이는 니콘에서 지금까지 출시된 DX 포맷(35mm 필름 기준 1:1.5~1.6 비율의 DSLR 카메라) DSLR 카메라 중에서 가장 빠른 연사 속도다.

니콘은 줌렌즈 AF-S DX NIKKOR 18-200mm F3.5-5.6G ED VR과 AF-S NIKKOR 70-200mm F2.8G ED VR 렌즈도 함께 발표했다.

발매 예정일은 D3000, D300S는 2009년 8월 28일, 18-200mm F3.5-5.6G ED VR은 9월 4일, 70-200mm F2.8G ED VR은 11월이다.

홈페이지\_www.nikon-image.co.kr

위한 종이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주)무림제지, (주)한솔제지 관계자와 표지 전문 가공업체인 EZ&B 이충희 사장이 표지 및 내지용 종이 샘플과 인쇄 적성, 특수 가공 방법을 활용한 표지 디자인에 대해서 발표했다.

출제모는 저자, 기획자, 편집자, 디자이너, 출판사 운영자/제작자/영업자, 출력소, 지업사, 인쇄사, 제책사 등과 같이 책을 만드는데 관여하는 업계 종사자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단체이다.

홈페이지\_ <http://daum.net/bookmakepeople>

## 한국출판인회의, 출판교육과정 개설

한국출판인회의가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출판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의 지원을 받아 출판제작과정과 출판 웹 마케팅, 저작권의 전략적 운용 등을 비롯한 총 12개 과정을 선보이는 이번 강좌는 오는 9월 1일부터 2010년 5월 30일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개설 과정은 '편집업무 커뮤니케이션', '출판제작', '출판인디자인 전문가', '출판 웹 마케팅', '출판실무 고급엑셀', '편집자의 마케팅전략', '시리즈물 기획 분석', '출판마케터의 업무수행', '어문규범의 이해와 활용', '저자와편집자 기획에서 홍보', '책임편집자를 위한 책의 해부와 편집', '저작권이 전략적 운용' 등이다.

## :: 출판뉴스



## 출제모, 표지를 위한 종이디자인 세미나 개최



출제모(회장 김호문)는 지난 8월 11일 오후 7시 서울시 중구 예장동에 위치한 <문학의집 서울>에서 <톡톡 튀는 표지를

## 경기도, 출판편집·유통입문 과정 교육

경기도는 파주출판도시와 함께 기업맞춤형 취업교육의 일환으로 '출판편집·유통입문 과정' 교육을 9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출판도시 내 기업의 필요 인력을 확충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으며, 주5회 총72시간 동안 출판기획자가 되기 위한 기본소양에서부터 출판기획·편집·유통에 대한 전문지식과 함께 현장 감각을 무료로 배울 수 있다.

채용계획이 있는 출판사 대표 및 인사채용 담당자들이 직접 면접을 통해 교육대상자를 선정하고, 교육진행과 최종 채용시까지 참여하게 된다. 올해 교육은 지난해 출판편집 입문 과정에 유통 관련 부분을 추가·보완했고 2008년 1기 교육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시시간을 보다 확대했다.

**:: 제지뉴스**

**한국제지, 온산공장 · 울산나들이 이벤트**



한국제지(대표 전원중)는 고객 감사 이벤트로 실시해 온 공장견학프로그램 'C보고 고래보고' 를 확대 실시키로 했다.

온산공장에서 월 1회씩 실시되는 이 프로그램은 공장 견학과 함께 울산의 장생포 고래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다. 선착순으로 참여 가능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타 지역의 거주자라도 견학프로그램 집결지로 모일시에는 참여할 수 있으며 대상자를 10~16세(초등학교3학년 ~ 중학교3학년)로 확대했으며 안전상의 이유로 아동 1명당 반드시 만 20세 이상 보호자 1인 이상 동반해야 견학이 가능하다.

홈페이지를 통해 공장견학 프로그램 신청코너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견학인원은 매달 40명이다. 한국제지는 견학 참가자 전원에게 회사에서 준비한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하며 견학후기를 남긴 고객 중에 매회 2편을 뽑아 선물을 증정한다. 견학은 매월 셋째 주와 넷째 주 토요일이며 동대구역에서 집결, 울산 공장 견학과 장생포 고래박물관을 관람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문의: 한국제지 마케팅팀 김소연 주임 02-3475-7234 sykim@hiper.com

**한국제지 온산공장 사원자녀 문화탐방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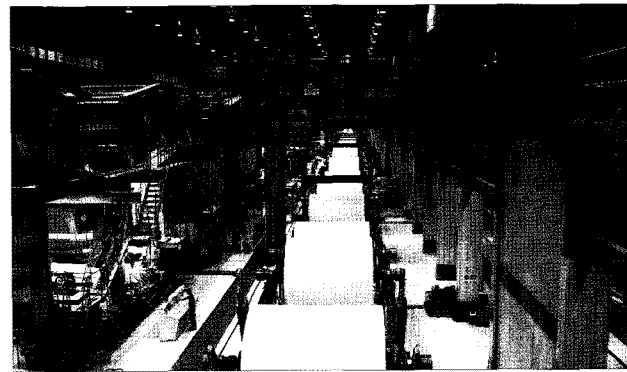
한국제지(대표 전원중)온산공장은 지난 8월 8일 사원자녀들의 여름방학을 맞아 '소호마울' 1일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왔다고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총 51명의 사원자녀들이 참가했다. 이번 행사는 오전에 숲 속을 거닐며 여러 식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연물을 이용한 가족액자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으며 점심식사후에는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며 민물고기를 잡는 체험행사를 가졌다. 또한 물놀이후에는 천연색소를 활용한 다양한 색상의 수제비를 직접 만들어 먹는 행사를 가지도 했다.

한국제지측은 이번 행사는 근로지원파트의 철저한 준비로 사고 없이 무사히 마무리 되었으며 방학 기간을 이용, 사원자녀들의 견문을 넓히고 회사에 대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고 밝혔다.

**무림페이퍼, 7월에 인쇄용지 생산 5만톤 달성**



무림페이퍼(대표 김인중)는 지난 7월 인쇄용지 월 5만톤 생산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월 5만톤 생산체제를 갖추에 따라 하반기 성수기에 대비 안정적인 물량공급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연산 60만톤을 달성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무림페이퍼는 지난 7월 한 달간 5만83톤을 생산, 진주공장 설립 이래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생산성 증대를 통한 원가 절감과 수익확대를 달성했다고 자체 평가했다. 회사측은 이번 월 5만톤 생산량 달성은 통합생산관리시스템(MES)과 생산·판매계획최적화시스템(APO) 가동을 통해 제조공정을 최적화한 결과로 특히 파지율을 대폭 낮춘 생산효율성 증대가 그 주된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무림그룹은 2011년 6월 동해펄프 일관화공장이 건설되면 동해펄프 45만톤, 무림페이퍼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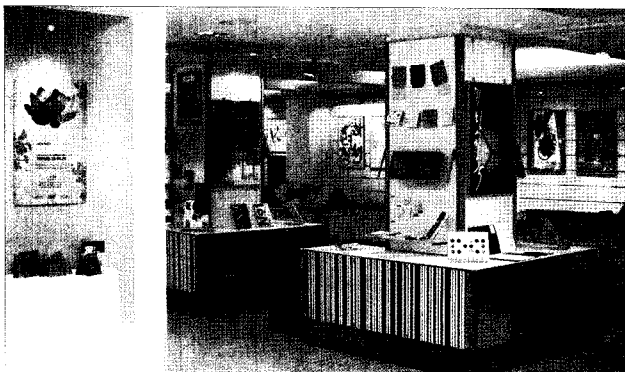
주공장 60만톤, 무림SP 대구공장 8만 톤을 포함, 총 113만 톤 규모의 인쇄용지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 무림, 창립기념음악회 개최



무림(대표 김인중)은 지난 7월 24일 창립 53주년을 맞아 클래식과 영화음악을 연주하는 클래식 콘서트로 꾸며 참석한 임직원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창립기념식이 끝난 후 이어진 창립기념음악회에서 임직원들은 경남지역 대표연주단체 진주 챔버오케스트라의 연주를 감상, 바이올린과 첼로, 피아노, 오보에, 호른 등으로 구성된 실내악 5중주가 엘가의 '사랑의 인사' 등 친숙한 클래식과 영화 OST로 유명한 'Over the rainbow', 'Fly me to the moon' 등을 연주했다. 특히 심재화 상임지휘자의 쉬운 해설은 직원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 삼원 페이퍼갤러리, 리뉴얼 오픈



삼원페이퍼갤러리(대표 이상욱)가 전시관을 기존보다 2배 확장,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갖춘 새로운 모습으로 지난 8월 10일 리뉴얼 오픈했다. '삼원 페이퍼갤러리'는 전시관의 확장을 통해 그 동안 통합되어 운용하던 '디자인 아트 갤러리'와 '페이퍼 샵'을 분리, 각각의 독립적인 공간으로 운용한다.

디자인 아트 갤러리에서는 전문적인 전시공간의 확보로 세

계 각국의 수준 높은 그래픽디자인 인쇄물과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작품들을 보다 여유로운 분위기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디자인 아트 갤러리와 연계, 운용하는 페이퍼 숍은 세계 각국의 300여 브랜드, 4,000여 종의 다양한 프리미엄 종이를 상설 전시하게 된다.

삼원특수지 이상욱 대표는 "다채로운 전시 문화행사 개최, 전문 페이퍼 샵 운용, 종의 강의를 통한 교육, 아늑한 휴식 공간 제공으로 광진구 디자인 거리의 랜드마크로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원 페이퍼갤러리는 리뉴얼 오픈을 맞이하여 '제7기 삼원 장학재단 장학생 작품전을' 연데 이어 'C&P Show' (8/24~9/5), '삼원 페이퍼갤러리 5주년 기념전시 Crossing the design's borders: 5 colors 5 concepts of wonder!!!' (9/12~ 10.31), 등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다양한 전시를 잇달아 개최할 예정이다.

## 동해펄프, 주요설비 도입 보이소사로 결정

동해펄프(대표 김인중)는 국내 최초인 펄프-제지 일관화공장의 주요설비를 독일의 세계적인 제지 설비업체인 보이소(VOITH)사로 결정하고 지난 7월 22일 동해펄프 울산공장에서 독일의 보이소사, 일본의 마루베니사와 함께 약 2625억원 규모의 설비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동해펄프 펄프-제지 일관화공장 건설 프로젝트에서 설비는 독일의 보이소사, 컨설팅은 일본의 마루베니사가 참여하게 된다. 동해펄프는 이날 초지기 등 주요 제지설비에 대해 계약을 함으로써 펄프-제지 일관화공장 건설에 탄력을 받게 됐다.

동해펄프가 이번에 도입하는 설비 중 초지기는 최대 지폭이 9.3m로 국내 최대의 세계적 규모이며 단일기계로서 인쇄용지 연산 45만톤을 생산할 수 있는 초대형 제지설비이다. 무림그룹은 동해펄프에서 45만톤, 무림페이퍼 진주공장에서 60만톤, 무림SP 대구공장에서 8만톤 등 총 113만톤 규모의 인쇄용지를 생산할 수 있게 되어 원가 및 품질경쟁력을 가진 제지그룹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으며 향후 10년 내에 동해펄프 부지에 제지 2호기, 3호기와 펄프라인을 추가 증설, 인쇄용지 총 200만톤 규모를 생산한다는 청사진도 펼쳐고 있다. 특히 이번 계약은 기계공급사인 보이소(VOITH)사의 주선으로 독일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장기저리로 받을 수 있게 되어 동해펄프는 대규모 투자금을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게 됐다.



:: 해외뉴스

World news



**제7회 아시아인 프린트 어워드 말레이시아서 개최**

제7회 아시아인 프린트 어워드가 2009년 11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며 금메달 수상업체는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프리젠테이션 어워드도 디너 도중 발표될 예정이다. 금메달 수상 업체는 사전에 통보하여 시상식 참석의 편의를 돕는다. 메달 수상 업체는 전원 어워드 카탈로그에 수록해 공적을 기리게 된다.

수상 업체는 어워드 카탈로그에 공적을 수록해 기존 고객 및 신규 고객에게 홍보할 수 있다. 카탈로그 수록은 심사위원단이 제품의 품질을 매우 높게 평가했다는 증거가 된다. 최고만이 금메달을 수상하므로 업체에게는 기술력을 뽐낼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심사위원단은 후보 업체의 면면은 물론 채 오직 번호로만 판단한다. 심사 대상은 반드시 상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이어야 하며 2009년 그래픽 아트(Graphic Arts)와 관련하여 자체 홍보 목적으로 제작된 제품(예를 들면 자체 프로모션 캘린더나 브로셔에 수록된 제품)은 '자체 홍보'라는 이름하에 카테고리 20개만 출품이 가능하다.

**Hepack 인쇄사, 4번째 다이매트릭스 가동 시작**

하이델베르크는 독일 뉴엔스타인에 위치한 Hepack Druck und Verpackung GmbH 회사가 하이델베르크가 제작한 다이매트릭스 시리즈의 4번째 다이 커터로 가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Dymatrix 106CS는 패키징 인쇄 회사에서 후가공 공정에 마지막 손질을 가하며 현장에 있는 다른 하이델베르크 다이 커터와 함께 작업한다.

Hepack 인쇄사는 패키징 대량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매년 2만톤의 솔리드 보드를 소비해 왔다. 회사는 600gm/m<sup>2</sup>까지의 솔리드 보드를 처리하고 보통 작업 당 10

만 ~ 30만 개의 박스를 작업해 왔다. 이 회사의 피터 하임(Peter Heim)사장은 "같은 시리즈에서 4번째 기계를 선택한 주요 이유는 조용한 가동과 높은 다이 커팅 품질을 내세운 하이델베르크 콘셉트를 수년간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이델베르크는 최근 수년간 패키징 인쇄에 적극적 노력으로 드루파 2008에서 처음으로 소프트웨어 솔루션과 시작부터 끝까지 완제품 생산 라인을 선보였으며 라인업에는 프리넥 워크플로에 근거, 프리프레스, 인쇄, 후가공 및 통합 솔루션이 포함되어 있었다.

새로운 초대형 규격 시리즈 스피드마스터 XL 145 및 스피드마스터 XL 162는 매엽 오프셋 기계 제품 구성의 최고 품질 라인을 완벽하게 구성했다. 이 인쇄기는 주로 패키징 인쇄와 대규모 출판 인쇄 분야에 사용되도록 설계되었으며 다이 커터와 접착기가 패키징 인쇄 부분 후가공 작업을 위해 제공되었다. 하이델베르크는 앞으로 수년내에 패키징 인쇄 분야에서 매출액의 25%를 올릴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이델베르크, 프린트 바이어 대학 개최**

하이델베르크는 오는 10월 27일부터 4일간 '프린트 바이어 대학'을 개최한다.

프로그램을 통해 마케팅, 구매 및 제작 전문가들은 인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전달하게 된다. 하이델베르크의 프린트 미디어 아카데미는 광고 에이전시, 출판사 등을 위해 특별히 4일간의 프로그램, '프린트 바이어 대학'을 개발, 마케팅 및 구매 담당자 뿐 아니라 생산 관리자가 오프셋 인쇄 프로젝트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 기술을 전수하게 되었다. 참석자들은 인쇄 프로젝트를 자신의 회사 혹은 고객사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에 관계 없이 실용성에 중점을 둔 정보가 풍부한 세미나와 워크숍으로 이뤄진 이 프로그램을 통해 큰 효과를 볼 것이라고 하이델베르크 측은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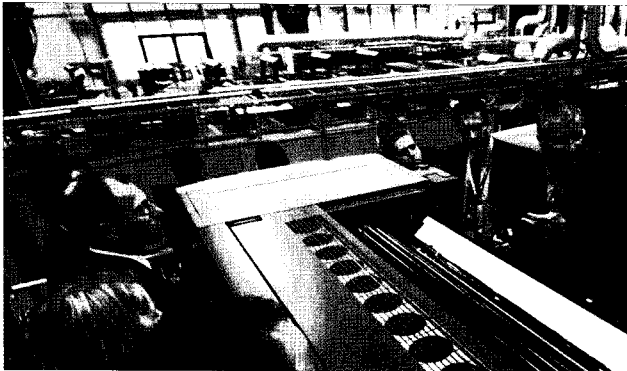
이 프로그램은 전문가가 고부가 오프셋 인쇄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최고 품질을 얻기 위해 필요한 전문적 지식들을 전수, 그들이 이미 디자인, 마케팅 혹은 구매 분야에 갖고 있는 전문성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참석자는 매엽 오프셋 인쇄와 효율적 생산 공정에 관해 종합적 경험을 갖고 있는 인쇄 전문가들의 지식을 통해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되며 작은 그룹으로 구성되어 효율적 학습을 보장하게 된다.

이번 프로그램 마지막에는 복잡한 오프셋 인쇄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는 '프린트 미디어 어드바이저'

증명서를 받게 된다. 독일, 하이델베르크에 있는 프린트 미디어 아카데미에서 영어로 진행될 예정이다.

홈페이지\_ www.print-media-academy.com

## 프린트미디어센터, 통합 패키징 생산 라이브 데모



하이델베르크는 자사의 비슬로흐-발도프 공장의 홀 11이 2008년 11월부터 고객 데모를 주최하기 시작한 이래 전 세계에서 방문한 600여명의 고객이 패키징과 라벨 인쇄를 위한 하이델베르크 솔루션의 라이브 데모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4천 평방미터가 넘는 공간인 PMC는 인쇄 분야 최대의 데모 센터로 알려져 있으며 통합 워크플로를 포함해 3개의 완벽한 생산 라인으로 작업 환경을 제시하고 각 데모는 방문객의 특정 요구와 관심에 맞춰 이루어지고 있다.

하이델베르크의 이사회 위원인 유르겐 라우터트 박사는 “패키징 산업이 처해있는 환경을 잘 알고 있다”며 세계적 환경에서 생산은 매년 3~5% 증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하이델베르크는 패키징 부분에서 모든 규모의 회사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함께 풀어나가는 조건에 맞춰 지속적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개발하고 있으며 하이델베르크는 가까운 미래에 패키징 시장에 대해 전체 회사 매출의 25%를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 하이델베르크, 인터텍 대상 수상

월스크린과 인텔리스타트 공정 중심의 운전 플랫폼을 특징으로 하는 하이델베르크의 Prinect Press Center가 미국 인쇄협회(PIA)가 수여하는 2009 인터텍 대상을 수상했다. Drupe 2008 이후에 나온 하이델베르크 Speedmaster 인쇄기에는 모두 다 장착 가능한 이 제품은 첨단 기술과 자동화, 데이터 관리를 접목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인쇄 업체가 갈망하는 장기 투자의 안전성을 제고했다. 하이델베르크

USA 제임스 던 사장은 “오늘날 우리 업계는 인쇄업체가 전체 공정을 세세한 부분까지 효율적으로 감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새로 나온 Prinect Press Center는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하는 운전 방식을 채택해 이 같은 추세에 완벽하게 부응할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한 치의 흐트러짐 없는 고품질을 구현한다”라고 말했다.

기술 혁신과 탁월함을 이룩한 업체에게 수여되는 인터텍 어워드의 시상식은 2009년 9월 13일 시카고에서 Print 09의 만찬(2009 Printing Industries of America Premier Print and InterTech Awards Gala)을 겸해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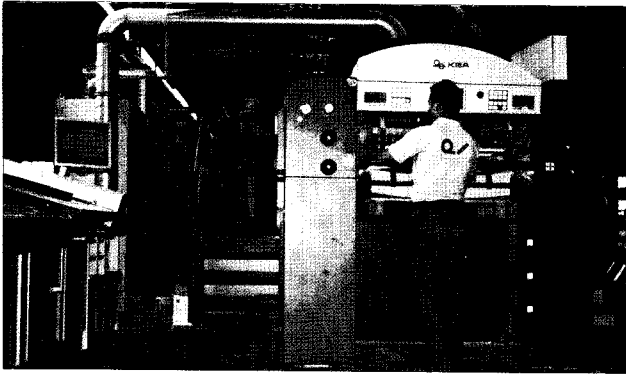
## 아그파 그래픽스, 글로벌 이미징과 제휴

아그파 그래픽스가 Anapurna 계열 가운데 UV 와이드 포맷 시스템 제품의 유통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아그파는 최근 전국적인 유통망을 갖춘 글로벌 이미징과 제휴를 맺었다. 이로써 글로벌 이미징은 최신 Anapurna Mv, Anapurna M4f, Anapurna M2를 비롯한 아그파의 Anapurna 인쇄 시스템 및 소모품 전체를 취급하게 되었다.

아그파가 글로벌 이미징을 파트너로 선택한 이유는 글로벌 이미징의 탄탄한 명성과 전문 지식을 갖춘 우수한 영업인력 때문이다. 아그파의 와이드 포맷 담당 매니저 마이클 화이트는 “글로벌 이미징은 14년 이상 간판 및 디지털 시장 부문에서 통합 시스템을 판매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napurna 계열의 UV 프린터와 소모품이 글로벌 이미징의 제품 라인업 확대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봅니다”라고 말했다. 글로벌 이미징 타라 램 사장은 “아그파의 Anapurna 와이드 포맷 시스템을 미국 전역에 보급하게 되어 기쁩니다. 아그파와 글로벌 이미징 모두 인쇄업계에선 역사가 오래고 디지털 잉크젯 기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라며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그러면서 “아그파의 Anapurna 시스템은 당사의 간판업체용 제품 및 서비스의 포트폴리오를 강화시켜 줄 것입니다. 가격과 기능 면에서 당사 고객들이 원하는 요소를 Anapurna 제품은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아그파는 9월 11일부터 16일까지 시카고에서 열리는 Print 2009(부스 제2600호/사우스 홀)와 10월 7~9일 뉴올리언즈에서 열리는 SGIA Expo(부스 제 2223호)에서 Anapurna 시스템을 비롯하여 고속 디지털 인쇄기인 Dotrix Modular와 M-Press 등 UV 잉크젯 솔루션 포트폴리오 전체를 공개할 예정이다.

## KBA, 인쇄기 가동 중 작업전환 기술 '플라잉 잡체인지' 공개



KBA는 지난 7월 24일 독일 쾰프튼에 위치한 AZ Druck und Datentechnik사에서 열린 오픈하우스 행사에서 플라잉 잡체인지(Flying JobChange : 무정지 작업전환)를 세계 최초로 시연했다고 밝혔다. 플라잉 잡체인지는 운전인쇄기에서 잘 알려진 가동 중 인쇄판 교환 기능을 매엽 오프셋인쇄기에 적용한 것으로써 인쇄기의 멈춤 없이 지속적인 생산작업이 가능케 한다.

시연회에서 쾰프튼의 라피다 106-4 SW2 양면 인쇄기는 90 gsm 오프셋용지에 각각 800매의 생산량을 갖는 5가지 1/1 출판물 작업을 연속적으로 이어서 인쇄하였다. 각각의 새로운 작업을 위한 인쇄판들은 시간당 1만 매의 속도에서 생산 작업 중에 교환이 이루어졌으며 그 후 바로 시간당 1만 5천 매의 생산작업 속도로 가속되었다. 실제로 인쇄기를 정지시킬 필요 없이 5가지 작업 생산이 단지 17분 후에 완료 되었다.

이러한 플라잉 잡체인지를 장착한 4색도 인쇄기는 일련의 소량작업에서 100%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으며, 공정과 작업 비용계산 방식에 의해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시간비율에 따라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1,800매의 작업량에 대하여 특히 효율적임을 보여주었다.

드라이브트로닉 SPC(동시 판교환 장치), 드라이브트로닉 플레이트-아이덴트로 구성된 플라잉 잡체인지는 소량 다품종 인쇄에서 작업 준비시간을 현저히 단축시켜 생산성 향상은 물론, 생산작업의 선택폭을 확장시켜 고객이 경쟁에서 한 단계 더 앞설 수 있는 이상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코니카미놀타, 프로덕션 프린트 매출액 2천억엔 달성

코니카미놀타는 기업내부의 인쇄등에 적용할 수 있는 고속 디지털인쇄기를 이용한 '프로덕션프린터' 사업을 2011~2012

년까지 전년 실적에 비해 2.4배에 달하는 2천억엔 규모로 늘려 작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회사측의 관계자는 2000억엔의 매출목표에는 고속디지털 인쇄기와 토너등의 소모품을 포함한 수치라고 밝혔다. 2009년 3월을 기준으로 프로덕션프린터 사업의 실적은 830억엔이었으며 현재는 중국이나 인도, 동남아시아, 중남미 등의 신흥국가의 비즈니스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회사 경영진에서는 '프로덕션프린터'는 오피스다운프로덕트의 뒤를 잇는 주요 제품군으로 2000억엔을 웃도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3~4천억원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덧붙였다.

## BOBST 새로운 광고 선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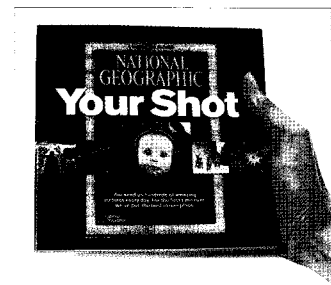
BOBST는 본격적인 한국 시장 공략을 위해 새로운 광고를 선보였다. 이번 광고는 전세계적인 스위스 제품의 좋은 이미지와 평판을 나타내는 컨셉이며 BOBST는 이 밖에도 제5회 IGATEC에 참여하는 등 한국 시장에서 다양한 마케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스위스 로잔에 본사를 두고 있는 BOBST는 1890년 창사 이래 다이커터, 접착기, 그라비아 인쇄기 등을 전세계에 공급해 왔으며 특히 다이커터와 접착기 분야에서는 최고 수준의 기술력으로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만로랜드코리아(주)는 패키징 분야에서 보다 나은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2009년 1월 1일부터 BOBST 제품과 부품의 판매 및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



## 내셔널 지오그래픽 특별소장판 HP 인디고로 독자 맞춤형 표지 제작

HP(대표 스티븐 길)는 세계적인 다큐멘터리 잡지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HP 인디고 디지털 프린팅 솔루션을 제공, 특별 소장판인 '내셔널 지오그래픽 유어 샷' 표지를 독자들이



원하는 사진으로 주문 제작한다고 밝혔다.

현재 발행 중인 이 특별 소장판은 독자들이 참여한 15만장이 넘는 이미지에서 선정한 최고의 사진들로 꾸며져 있다. 독자들은 잡지 홈페이지의 인기 있는 '유어 샷(Your Shot)' 페이지에 각자의 사진을 제출하고 내셔널 지오그래픽 잡지에 본인 사진이 출판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이번 특별 소장판은 자신의 고해상도 사진 이미지가 표지로 실린 잡지를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다.

HP 이미징 프린팅 그룹 아시아태평양 및 일본의 그래픽 솔루션 비즈니스 담당 VS 해리하란 부사장은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독자가 주문한 맞춤형 표지를 위해 HP 인디고 기술을 사용하기로 한 것은 HP 프레스가 최상의 인쇄품질과 뛰어난 생산성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HP와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Collaboration(콜라보레이션)은 점차 출력물들이 개인화하는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하는 것이다.

## 제록스 디지털 인쇄 시스템, 미국 프린팅 기기 평가기관 최우수 제품 선정

제록스(대표 앤 멀케이)는 최근 자사의 디지털 인쇄 시스템이 미국 최대 프린팅 기기 평가기관인 '베터 바이즈 포 비즈니스'(Better Buys for Business)의 '편집자 선정(Editor's Choice)' 최우수 제품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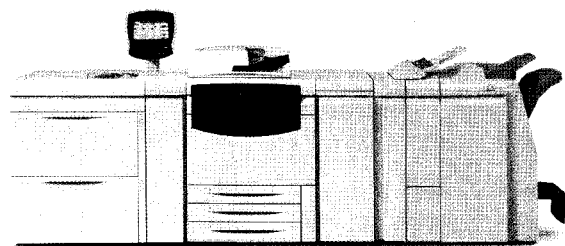
'베터 바이즈 포 비즈니스'의 가이드를 저술하는 편집인들은 '디지털 인쇄기 및 디지털 복사기' 부문 심사 대상에 오른 수백 가지의 경쟁 모델들 중 제록스 제품들이 최고의 성능과 가치를 제공한다고 평가했으며, 이번에 선정된 최우수 제품들은 제록스의 700 Digital Color Press(이하 700 DCP), 누베라(Nuvera) 시리즈, 제록스 4127, 그리고 도큐컬러(DocuColor) 242/252/260이다.

프로덕션 시장 엔트리급 부문에서 제록스의 주도력을 잇는 주문형 컬러 디지털 인쇄 시스템 700 DCP는 제록스의 오랜 노하우가 축적된 지원기능과 다중 서버 옵션을 갖춘 유연한 워크플로 옵션, 그리고 뛰어난 용지 핸들링과 대용량 용지 적재 및 다양한 후처리 옵션 구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Better Buys for Business'의 'Editor's Choice'는 현재 시판되고 있는 모든 프린팅 기기를 대상으로 용지 핸들링, 서버 옵션, 보안 및 인체공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독자적 기능과 구성 등을 엄격하게 평가하여 1년에 한 번 편집자 선정 최

고 제품상을 발표한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 위치한 'Better Buys for Business'는 인쇄 관련 제품 구매자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독립기관으로, 문서 이미징 장비 분야에서 미국 최고의 권위를 자랑한다.

## 일본후지제록스, 12개 기종 환경인증 취득



후지제록스(주)(대표이사 야마모토 다타히토)는 태국정부로부터 크린라벨 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크린라벨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태국환경연구소(TEI) 및 태국공업성의 공업기준연구소(TISI)에서 열린 수상식에서 후지제록스는 ApeosPort-III와 DocuCentre-III시리즈의 12종이 수상했다.

태국크린라벨 제도는 친환경형 다품종 및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인증하기 위해 지난 1993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복사기에 대해서는 소비전력, 소음, 플라스틱부재, 100%재생지의 이용여부, 토너·카트리지가 및 드럼의 회수방침과 행동계획 등 19개의 인증기준이 있다.

'환경을 배려한 상품을 고객에게 제공함에 있어 성역화와 성자원화에 공헌한다'는 방침 아래 후지제록스 타이랜드는 성에너지상품의 판매촉진, 토너 카트리지의 무상회수 등 환경을 배려한 사업 활동을 전개하는 것과 함께 태국 국내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디지털복합기에 대해 크린라벨을 취득하고 있다. 2004년 이후 올해까지 인증을 받은 기종은 총 40기종에 달하고 있다.

태국정부는 크린조달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의 전부문에 크린조달율을 2011년까지 60%로 끌어 올리는 4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후지제록스 타이랜드는 앞으로도 정부와 보조를 맞춰 고객의 환경니즈에 부응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